

작 음

1278. “마리아, 당신은 작았기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작은 이들 안에 기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작은 영혼으로 지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빠져 나오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작음이 언제나 그대의 허무를 일깨우게 하십시오.

1279. 그대는 아무도 눈여겨 보지 않는 들꽃을 꺾어 모으십시오. 귀한 꽃들은 위대한 영혼들을 위해 남겨 두고 그대는 들판 어디서나 흔히 피어나는 이 작고 소박한 꽃들을 모아 들이십시오.

한 송이도 소홀히 하지 말고 다 꺾어, 그것으로 그대의 삶을 장식하십시오. 귀한 꽃들은 제 때에만 꽃을 피우지만 이 겸손한 꽃들은 사시 사철, 풍토를 가리지 않고 피어납니다.

나날이 피어나는 꽃들, 이 평범한 꽃들을 주님께서 그대에게 청하십니다. 이 꽃들은 인위적인 것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단순함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80.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지요! 오직 작은 이들만 베들레헴의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하느님의 신비를 꿰뚫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작은 이들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더 작아지십시오. 그대의 작음이 아기 예수님을 미소 짓게 할 것입니다.

영혼이 작은 일에 충실하고, 사랑 할 때 위대한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1281. 어린이의 순수한 시선은 감탄의 대명사입니다. 자기보다 큰 것 앞에서 놀라워합니다. 하느님에 앞에 감탄하십시오.

1282. 강하신 그분의 손에 그대를 맡겨드리십시오. 사랑으로 그대 무능의 영역 안으로 들어 가십시오. 작음 안에 우리의 힘이 있습니다. 연약함 안에 우리의 강함이 있습니다.

1283. 그대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으로 날인된 삶을 살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대 에게서 인간의 나약함이 영원한 사랑의 인장으로 날인되는 신비스런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오, 사랑... 사랑이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그 끝없는 무한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사랑이신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청하시다니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하느님, 아무 것도 없는 이에게 무엇을 청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나에게 구걸하시는 당신께 드릴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제게 주십시오.

1284. 그대의 작음에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땀감이 작을수록 모닥불은 더 빨리 타오릅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그대를 감싸 주십니다.

1285. 항상 작은 자로 남아 있으십시오. 그리고 이에 어울리게 항상 감미롭고 부드러우며 양선 하십시오. 마치 목자 품에 머리를 기댈 권리가 있는 온유한 어린양처럼, 그분 사랑의 메아리, 맥박, 숨결을 들을 권리가

있는 어린 양처럼 작은 이가 되십시오.

작은 이들은 얼마나 많은 권리를 누리는지! 목동은 그의 가장 작은 양을 쓰다듬고, 자신이 마시는 잔으로 함께 마시고 자신의 접시에서 함께 먹습니다. 애정으로 그를 지켜주고 사랑으로 바라보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호합니다.

1286. 그분이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작은 이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 아기가 되어 오시어 앞장서 가십니다.

아주 작은 이가 되십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1287. 지극히 단순한 일에 온전히 충실 할 때 영혼은 주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들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작은 것들은 항상 그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냅니다.

1288. 사랑의 위대한 빛으로 둘러싸인 작은 영혼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또 없습니다. 당신 피조물을 사랑의 표적으로 삼으시고 감싸 주시는 위대한 하느님. 작디 작은 피조물과 함께 계실 때만큼 하느님께서 그토록 위대해 보이신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끊임없이 노래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명인지요!

1289. 하느님의 신비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것은, 하느님은 존재 자체 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다." 당신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느님 신비의 심부에는 무한한 단순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극히 단순하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모두 단순해집니다. 영혼이 진보해가는 만큼 단순해져 갑니다.

1290. 단순함은 성모님의 마음을 앗아 갑니다. 단순함은 우리 삶에 그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강한 힘을 줍니다. 하느님은 단순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차지하시어, 당신 마음 안에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1291. 사심 없는 단순한 눈길로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하느님에 외에는 아무 것도 원하지 않는 단순한 영혼.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단순한 영혼이 되십시오.

항상 그렇게 단순함을 유지하고, 절대로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명을 잘 완수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밀알처럼 침묵과 고독 속에 그대의 삶을 묻으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쫓아낼 위험이 없는 그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고 기뻐하십시오.

1292. 그대의 삶이 복잡한 미궁 속에 빠져 헤매지 않게 되도록 주의하십시오. 단순하고 사랑스런 관상의 곧은 선을 똑바로 따라가도록 하십시오.

1293. 참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모든 것을 요약하고 사랑 외에 다른 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된 요구입니다.

사랑은 아무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말과 해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신을 관상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단 일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한눈을 팔 겨를이 없습니다.

1294.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을 진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소박하고, 작아지고, 정말 단순해지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또 없습니다.

이는 어린이의 길이고 단순한 사랑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복잡함도, 어려움도, 미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단순함이십니다.

1295. 단순함의 길로 점점 더 깊이 들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영적 어린이의 아름다운 길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리지외의 성녀와 깊은 우정을 맺으십시오. 그녀는 사랑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관상자들의 영혼을 특별한 방법으로 도와 줍니다.

그녀와 절친한 친구가 되십시오.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대를 예수님께 데려다 줄 것입니다.

1296. 깨끗한 눈은 하나님을 뵈을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에 대한 상급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그대의 눈을 정화 하십시오.

1297. 우리의 삶이 단순해 질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게되고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게 되는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분만을 바라 볼 때, 우리 삶은 얼마나 단순해지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질 테니까요. 부족한 것은 그분께서 채워주실테니 우리는 안심하고 서명할 수 있습니다.

1298. 어머니의 품 안에 잠자는 어린이처럼 단순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는 동안에도 아무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와 형제들을 생각하고 결코 자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마리아, 성인 형제들, 얼마나 많은 마음들이 그대를 보살피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신경을 씁니까? 이제 그대는 오직 그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보게 될 것입니다.

1299. 대부분의 어려움은 단순함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해질 수도 있고 마냥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단순해 진다면 그대나 다른 이들의 인생여정이 얼마나 수월해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과 다른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변화시키십시오.

1300. 그대의 삶이 단순화 된다면 그대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가 더욱 진실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1301. 우리 생활 전체가 단순한 표징들로 짜여 있습니다. 이는 영혼을 위해 세우신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으로부터 벗어나지 마십시오. 성덕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 단순함의 길에서 성덕의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대의 행동과 표정에서 단순하고, 그대의 갈망, 느낌, 야망들조차 안에서 단순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어깨에 그대를 메어 주시고 당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대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단순한 표징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

1302. 오 하느님, 성녀가 되는 것이 왜 이다지도 어려울까요? 혹시 우리가 단순함을 거슬러 선전 포고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1303. 정말 단순해 지십시오.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길가다 만나게 되는 꽃들을 꺾어 모으고 피어 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연연하지 마십시오.

1304. 최대한으로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 단순하고 또 단순해지십시오. 단순하신 하느님의 그 투명한 신비를 닮아 가는 것.

단순하게 하는 사랑,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단순함... 점점 깊어지고 단순해지는 사랑의 강렬한 빛으로 투명해지는 영혼의 장벽들.

그림자 없이, 맑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와주며, 사랑으로 깊이 정화된 영혼이 되십시오.

1305. 영성 생활은 그 자체로 단순한 것이며 갈수록 더 단순해져 갈 것입니다. 충만한 영혼은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 갈수록 더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참으로 단순해 집니다.

그는 모든 것-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들까지도 생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본성적으로 혐오감을 느끼는 것들조차, 은총으로 기쁨과 행복의 샘으로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영혼으로 하여금 망설이고 후퇴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이제는 성덕의 정상을 향해 거인처럼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1306. 조건 없는 내어줌에는 매우 진지하고 근본적인 요구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웅적이고 위대한 덕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드러나지 않는 섬세한 부분에 까지 내려가십시오. 아주 작은 덕들... 향구한 미소와 끊임 없는 양보, 온화한 표정, 부드러운 판단, 한결 같은 온유함, 요란스럽지 않는 숨은 삶에로까지 내려 가십시오.

정말 많이 내려 가야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삶으로, 사랑의 섬세한 필치로 그려낸,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1307. 그 동굴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작았는지요! 얼마나 작았는지... 오직 그 작음 안에만 그토록 위대한 분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308. 아버지! 당신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 발 아래 소리 없이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 외에 다른 것은 청하지 않으렵니다.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의 작음은 강한 음식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부스러기로 충분합니다.. 제 영혼에 필요한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신비스런 당신 빵 부스러기 잔치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채, 땅에 엎디어 당신 곁에서 행복하게 죽게 해 주소서.

1309. 하느님은 영원하시고 그대는 하찮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 그대는 없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님께 도전할 수 있습니까?

그대는 티끌이요, 가는 먼지, 작은 물방울, 작은 자, 허무입니다. 존재이신 그분께서 당신 신비 안으로 그대를 흡입하길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허무에 이끌러 들이시어, 그리로부터 그분이 되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대의 허무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 허무로 새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1310. 당신의 조각배는 얼마나 가난한지! 그런데 그 가난함이 하느님의 무한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1311.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그대를 창조하셨고 또 지금도 매일, 매일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부차적인 기적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분 사랑의 최상의 기적 안으로 들어 가십시오. 그대의 작음을 당신 자비의 신비로운 표정으로 만들어가시는 그 거대한 기적 안으로.

1312. 영혼이 자기 허무의 심연을 하느님의 심연 속에 자리잡게 할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심판 받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그들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의해 움직여 지도록 맡기십시오.

1313. 끝없는 대양 안에 잠긴 작은 영혼은 점점 더 확실하게 자신의 포구를 향해 나아갑니다.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인생을 노래하며 안전하게 길을 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욱 안전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작은 이들을 돌보시며 당신의 무한함으로 그들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안아주십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